

12/25/15

설교 제목: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요한 복음 3:16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입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날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에 좋기만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해서 마냥 기쁘기만 했을까요?

저는 여지껏 세상을 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참 염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염치 좀 있으라고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인성 교육도 받지만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지 공정이라든지 공의라든지 당하는 상대방의 입장이라든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긴 지난 주에 말씀 나누었듯이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저는 이 세상 모두가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도들 만큼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답게 염치 좀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이시간 잠시나마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야만 했던 하나님의 입장과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했던 예수님의 입장,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아야만 했던 마리아의 입장을 좀 염치있게 헤아려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육친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의 입장을 보십시오.

처녀가 임신이라니요?

지금은 흔해 결혼 전에 임신하는 것이 시댁에 예물이라는 웃고 넘기자는 말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약혼한 남자도 모르는 임신이라니요?

간통은 당시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죄였습니다.

다행히 남편 요셉이 성품이 좋고 믿음이 있어 천사의 말을 듣고 조용히 헤어지고자 했던 마음을 접긴 했지만 마리아는 남편에게 평생 부담감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눈초리와 수군거림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당시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것을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처녀가 애를 배도 할말이 있다고 그래 네가 뻥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비아냥 거렸으며 예수님께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힘없는 평범한 여인이었던 마리아는 이 모든 수모를 감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 왜 만왕의 왕이신 자신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낮고 천한 이곳에 그것도 고관 대작의 아들이 아니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야 했나요?

와 주었더니 얼씨구 바보같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도 되지 않은 소리들만 지껄여 대더니 결국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 버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이땅에 오셔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별거벗기운채 달려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포함해 다 자식 기르는 사람들이니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줘야만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충분히 가슴에 와 닿을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 차라리 자신이 죽는게 낫지 자식을 죽는 곳으로 들이미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다른 이의 희생과 고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축약해 놓은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인간 구원을 주관하시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그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엡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율법을 잘 지키면 좋은 일 하면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맞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엡 1: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 (엡 1: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 (엡 1:6)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 (엡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창세 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을 이루셨으며 그 구원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세상을' 입니다.**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 우주를 가리킵니다.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우주입니다.

당신께서 친히 만드신 세상이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애착이 가시겠습니까?

세상은 넓은 의미에서 온 우주를 말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은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서슴치 않고 이방인을 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대상이 온 인류로 넓혀졌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인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독생자를 내어 줄 만큼 사랑하사'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 주고 대신 우리를 살릴 만큼 사랑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 1:2)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사 1:3)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사 1:4)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엡 2: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삯은 사망이므로 죄지은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요일 4: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고 동시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information)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IT 교육자를 보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시킬 어린 양으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저를 믿는 자마다' 입니다.**

복음은 온 인류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온 인류에게 복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효력은 믿는 자에게 한해서만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야 한다거나,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거나, 교회를 몇년 이상 다녀야 한다거나, 등등의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지막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 온 인류는 죄를 지었기에 멸망 당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의 값을 치루도록 해 주심으로써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을 가르는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겪은 늦뱀 사건을 기억하시죠?

모세가 늦뱀을 장대에 높이 달았을 때 늦뱀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늦뱀이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늦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명을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 Good News 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기쁜 소식 Good News 이냐구요?

### 1. 공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공짜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공짜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이 공짜라는 사실이 오히려 믿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공짜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 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 그 자체도 우리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셔서 믿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 2. 구원의 효력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구원 받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주어집니다.

이와같이 구원 받은 자와 구원 받지 못한 자는 지금 당장은 잘 모르지만 결국은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있는 길을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와 지옥에 간 부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을 감내한 분들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되 우리 자신들만 누리지 말고 가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전하여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듣고 누리게 되도록 힘쓰십시다.